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태국 송크란축제 참석...현지 관광객 등 대상 홍보 체험 요소·무대 공연 등 문화적 공감대 형성 주력

장흥군과 장흥축제관광재단이 태국 대표 축제인 송크란 현장에서 활발한 교류와 홍보 활동을 펼치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 물축제 교류단은 최근 태국 방콕 벤차키티 포레스트 파크 일원에서 열린 '마하 송크란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현지 관광객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제 홍보를 펼쳤다.

송크란 축제 개막식에는 수라씩 판짜른 위라꾼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과 타야니 끼안파이본 태국 관광청장을 비롯해 각국 주태국 대사가 참석했다.

장흥군에서는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과 전남도청 관계자가 함께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교류단은 행사 기간 동안 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K-여름 대표축제인 장흥 물축제를 적극 알렸다.

특히 '물'을 주제로 한 체험 요소와 무대 공연을 통해 축제 콘텐츠를 알리며 현지 관광객과 외국인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물이 지닌 상징성을 매개로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했다.

액운을 씻고 복을 기원하는 송크란과 치유와 건강을 테마로 한 장흥 물축제는 서로 다른 매력을 바탕으로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전남도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 간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물축제 기간 동안 태국 전통 공연단 초청과 현지 홍보관 운영 등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타야니 끼안파이본 태국 관광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에서 온 장흥 물축제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양 국가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6 예비 글로벌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현지 홍보를 통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과 빠배용Zip 등 장흥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정남진 장흥 물축제 교류단은 최근 태국 방콕 벤차키티 포레스트 파크 일원에서 열린 '마하 송크란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현지 관광객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제 홍보를 펼쳤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여수 낭도 여산마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선정

여수시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 주관 '제6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서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과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제 공모사업으로, 인구 1만5000명 미만 마을의 자연·문화 자원과 지속 가능성, 지역 거버넌스 등을 평가해 세계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낭도는 지난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제도권 끝에 본선에 진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낭도는 천연기념물 제434호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와 주상절리, 신선대 등 독특한 해안 지형을 갖춘 섬으로, 자연 자체가



공룡발자국·주상절리 등 자연·문화 자원 '눈길'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국가지질공원 추진도

낭도 전경

관광자원인 섬으로 평가받는다.

또 낭도와 사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추진되면서 섬 연계 관광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해수욕장·오토캠핑장·트레킹·예술산책로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생태태양로, 인도교,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반 조성도 추진 중이다.

마을 전역을 활용한 '강변미술길' 등은 자연·예술·휴식이 어우러진 관광 콘텐츠

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역시 낭도 관광의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민들은 해설·체험·숙박 등 관광 전반에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전통문화 재현과 생태해설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시는 5월까지 현장 실사와 보안 컨설팅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낭도는 자연, 문화, 주민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이다"며 "세계적인 관광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건축사적 가치 인정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에서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전달식이 열렸다.

행사는 지난해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고급 국가유산청 차장과 이길용 전남도 문화유산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고택의 보존 상태와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또 고택이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성의 생활사와 민속, 건축적 특성은 물론, 격동의 근현대사를 담아온 가치와 의미를 공유했다.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은 조선 후기 정순일(1609~?)이 봉강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이후 400여년간 이어져 온 전통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 호남 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배면의 사적·수남공간 구성은 보성 지역 민가의 특징과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고택 서측 계곡 건너편에는 일제강점기 서당이자 외부 접객과 객실 기능을 담당했던 삼의당이 위치하고, 전면에는 1880년 호남 유림이 상언해 조정의 명으로 세



보성군은 최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를 받았다. 사진제공=국가유산청

운 광주이씨효열문이 자리해 문중의 역사와 민속적 전통을 함께 보여주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의당 일원을 중심으로 한 원림 경영 방식, 득량만을 향한 통죽축, 사랑채 안마당 정원 등은 전통 건축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요소로 꼽힌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보성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다"며 "앞으로도 전통가옥과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군민과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광양, 봄철 관광객 유치 지원 맞춤형 '관광인센티브' 확대

광양시는 봄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4월을 맞아 관광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방문을 체류와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관광 구조 강화에 나섰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기업회의 등 미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광차, 식당, 숙박시설 이용 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MICE 행사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숙박을 동반하지 않은 회의와 기업연수 등 당일 일정 행사에도 1인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아울러 2026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에게는 1인당 3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전남 드래곤즈 홈경기장 방문 등 지역 대표 행사도 혜택 대상에 포함해 축제, 스포츠, 축제행사를 연계한 관광 동선을 확대한다.

시가 점점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운동주 테마관광이다. 운동주 시인의 친필 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해 온 광양시는 올해 연계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광양관광 미션투어'도 운영한다. MZ세대와 소규모 여행 수요에 맞춰 일반 미션을 기본으로 하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미션으로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gwangnam.co.kr



순천시와 ㈜아이코닉스 관계자들이 '순천 자연 활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 아이코닉스와 애니메이션 글로벌시장 도전

공동제작 업무협약...내년 6월 배급 목표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순천시가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에 승부수를 던졌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일위 케이선센터에서 '뽀롱뽀롱 뽀로로', '피파버스 타오' 등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아이코닉스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순천 자연 활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거나 제작을 지원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순천형

오리지널 IP를 공동제작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크다.

작품은 순천이 보유한 압도적 생태자원을 3D CGI(컴퓨터로 만든 입체 그래픽을 움직이게 해서 만든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며, 총 40분 분량의 완결형 단편으로 2027년 6월 배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니메이션 방영 이후의 확장성이다. 제작된 IP를 활용해 라이선싱 등을 통해 캐릭터 상품,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2차 산업으로 확장해 지역의 실질적인 수익모델 창출을

노린다.

최종 대표는 "순천이 가진 매력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 사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시가 공동제작사로 나선 만큼 순천의 생태자원에 글로벌 제작 역량을 더해, 전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순천표 글로벌 IP'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직후 아이코닉스 제작팀은 제작 기획 단계부터 순천의 독자적 이미지를 스토리텔링 요소로 녹여내기 위해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등에서 2박 3일간 영감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우주항공축제' 서울 팝업 성황 더현대서 '우주 문명' 체험존 운영...18일까지 계속

누적 방문객 1만여명, 고흥군이 서울에서 연 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팝업스토어 행사의 열기가 다음달 열리는 본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의 흥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서 운영한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에 누적 방문객 1만여명이 방문했다.

'지구 문명에서 우주 문명으로'라는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은 도심 속 색다른 서울 지하 1층에서 운영한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에 누적 방문객 1만여명이 방문했다.

입구에 설치된 거대 우주인 별문과 천장 형성 오브제, 화성 환경을 재현한 '우

주 문명존'이 특히 인기였다.

이중에서도 '우주인 카니발존'의 우주복 체험이 인기를 끌어 긴 대기 줄이 형성됐고, 본축제 기간에만 제공되는 누리호 발사장 견학 티켓은 매일 조기 소진됐다.

또 누리호 축소 모형이 '지구 문명존'에 전시되고 체험존인 '스피어 로버'는 과학에 관심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8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우주의 신호(Space Signal)'를 주제로 한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흥=고효성 기자 city@gjdream.com